

○委員長 李永和 本部長 수고했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專門委員이 나오셔서 그 동안의 豫算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泰鎬 專門委員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

1992年度 交通放送本部 歲入 歲出 豫算案은 交通放送事業費 特別會計로 編成되어 있으며, 總括해 보던 歲入 및 歲出이 前年對比 17.2%에 該當하는 11億원이 增額된 75億원으로 計上되었으며

○ 人件費, 官署 運營費 및 經常事業費 등 基本的 經費는 68億원으로 全體 豫算의 94%에 該當하며

○ 投資事業費는 5.3%에 不過한 4億원으로 計上되었음.

이와같이 編成된 交通放送本部 所管 豫算案을 歲入과 歲出 部門으로 區分하여 檢討하면, 다음과 같음.

가. 歲入部門

前年對比 17.2% 增額된 75億원으로 構成內譯은

- 1) 放送協贊 廣告收入
前年對比 22%에 該當하는 2億 8,000萬원이 增額된 15億원
- 2) 一般會計 轉入金
前年對比 16%에 該當하는 8億원이 增額된 59億원
- 3) 前年度 移越金
前年度 移越豫算에는 歲計 剩餘금이 1億 4,000萬원이 있었으나 이번 豫算案에는 移越금이 없음.

以上과 같이 歲入部門에서 一般會計 轉入

金 59億원은 交通放送本部 豫算의 80%에 該當하며, 이는 市民의 稅負擔으로 編成된 것으로 他 放送社와 같이 商業 放送을 推進하여 獨立採算의으로 運營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함.

나. 歲出部門

交通放送事業費特別會計 1992年度 歲出案은 前年對比 17.2%에 該當하는 11億원이 增額된 75億원으로 編成되었으며 그 主要 內譯은

- 1) 定規放送製作
前年對比 18%에 該當하는 2億 5,000萬원이 增額된 16億원으로 司會者, 리포터, 通信員 등 人件費로 構成되어 있음.
- 2) 계기성 特別放送製作
前年對比 80%에 該當하는 4,000萬원이 增額된 8,000萬원으로 秋夕, 설날 및 年末年始 特別放送 時 出演料 및 리포터료임
- 3) 幹部職 特別 辦公費
新規로 2,300萬원이 計上되었음.
- 4) 放送局 開局 紀念 行事費
前年對比 80% 增額된 7,700萬원
- 5) 放送專門職 增員
新規로 8,700萬원이 計上되었으며 PD 3名, 情報處理分析職 1名, 資料管理職 1名 등으로 5名의 人件費임.
- 6) 全國道路網 市內道路網 電光板 製作과 電話機 架設費가 新規로 4億 2,000萬원이 計上되었음.
- 7) CCTV 15臺 追加 連結設置費 4,500萬원.
- 8) 端末機 設置費 9,500萬원
- 9) 中繼裝備 및 移動 送信車 1億원
- 10) 電氣需要 增大에 따른 電氣施設 및 測定 裝備 購入費 3億원으로 計上되었음.

以上과 같이 交通放送事業費 特別會計 豫算案을 檢討해 본 結果

○ 人件費 및 經常事業費 즉 硬直性 豫算이 全體 豫算의 94%를 點하고 있으며

○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도 全體 豫算의 80%에 該當하는 59億원으로 商業廣告問題를 빠른 時間 내 解決하여 市民의 稅 負擔을 輕減시키고 交通放送本部도 獨立採算의 經營方式을 導入할 수 있게 地方公社化 必要性이 있다고 思料됨.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永和 이어서 豫算案에 대한 委員님들의 質疑와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質疑와 答辯은 交通放送本部長을 상대로 일문일답 方式으로 進行할 豫定이었습니다만 豫算 審議가 금년이 처음이고 성실하고 진지한 答辯을 듣기 위해서 두 분이나 세 분 委員님이 質疑하신 다음에 停會後 答辯을 듣는 방식으로 進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님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雄委員님!

○ 金鍾雄委員 金鍾雄委員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7.2% 增額된 11億원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기본 經常經費가 66.1%가 增額으로 豫定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本部長님의 자세한 趣旨 背景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歲出 부문에서 계기성 방송제작비와 방송국 開局紀念行事費 등에 80%의 전년 대비에 가까운 增額을 要請하셨는데 여기에 또한 어떤 特別한 사유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끝으로 우리 專門委員께서 報告한 내용 중에 상업방송 광고 허용이 필요하다는 指摘을 하셨습니다.

지금 市民을 대표한 우리 市議員들로서 보았을 때 막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송국의 경비를 市民의 血稅로써 그냥 負擔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나 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平和放送이나 佛教放送도 자금자족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交通放送은 그보다도 높은 淸취율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액 우리 市民들의 稅金

으로 負擔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脈絡에서 만약 상업광고 放送이 허용된다면 本部長께서는 완전 자금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本部長으로서 배경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永和 金箕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金箕英 民主黨 金箕英위원입니다. 연일 交通放送業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증부된 發言 같습니다만 交通放送 연중 행사에 드는 費用이 91年度에 4,900萬원 그것이 맞습니까? 91年度가 4,900萬원이. 여기 보면 增減이 또 3,900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숫자가 틀린 것 같은데 어느쪽이 틀립니까? 6페이지 맨 밑에 交通放送 연중 행사에.....

○ 交通放送本部長 白錫春 4,900萬원이 맞습니다.

○ 金箕英委員 맞습니까? 그러면 약 60%가 금년에 증액된 7,800萬원으로 豫算이 策定되어 있는데 때마침 過消費로 市民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交通放送本部가 豫算이 부족해서 복도에 채상을 놓고 事務를 볼 정도인데 이러한 行事に 쓸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데 豫算을 效率的으로 運營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本部長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本委員이 듣기로는 서울시가 트롤리버스를 운행할 計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확인을 해서 豫防的인 차원에서 보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 道路 事情으로 봐서 도저히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2층버스도 많은 돈을 들여서 1個月 정도도 안되어서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豫算浪費만 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가 전시 행정과 可視行政을 하기 위한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번 트롤리버스에 드는 費用을 交通放送에 더 投資해 달라고 해서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市民에게 제공해야